

# WHO-FIC 연례회의 참가 결과보고(요약)

## □ 출장개요

- 기 간 : 2014. 10. 13(월) ~ 10. 19(일)
- 장 소 : 스페인 바로셀로나
- 출장목적 : WHO-FIC 연례회의 참석

※ WHO-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

; 보건 분야의 범위 및 기준 설정을 위한 조직으로 질병,사인, 장애 등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

- 출 장 자 :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이석민 주무관

## □ 수행 업무내용

- 사망원인통계 작성과 관련한 표준 및 지침 의견 제시
- 사망원인 선정관련 기준 자료 수집
- 사망원인분류 국제표준 개정상황 파악

## □ 시사점

- 사망원인통계 작성과 관련한 국제표준 및 지침에 대한 수정의견 8건 제시(6건 반영, 2건 추후 논의)
- 동 회의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을 반영한 원사인 자동선정 테이블 입수를 통한 향후 업무환경 변화 대처 가능
- 국제질병,사인분류(ICD)의 개정시기 파악 및 대처방안 모색

※ WHO에서 ICD-11('2017년 개정예정)의 실무적용 프로젝트에 한국도 참여하도록 요청

---

# WHO-FIC 연례회의 참가 결과보고

---

2014. 10.

사회통계국  
인구동향과



# 차 례

I. 출장 개요 .....	1
II. 세부 수행업무 .....	2
1. 사망원인통계 작성 관련 의견제시 및 자료수집	
2.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 동향 파악	
III. 시사점 .....	4
1. 사망원인통계 시계열 안정성 확보	
2. ICD-11 현장적용(Field trial) 실시	

출장배경	<p>.우리 청 사망원인통계는 WHO-FIC에서 설정하는 국제표준질병.사인분류(ICD)를 기반으로 한 한국표준질병.사인분류를 기준으로 작성 중임.</p> <p>.동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표준 및 지침을 논의하는 WHO-FIC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현황과약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.</p>												
수행업무	<p>.국제표준질병.사인분류 관련 의견제시 및 동향과약</p> <p>.원사인 선정관련 기준 자료 수집</p>												
출장기간	.2014년 10월 13일(월) ~ 19일(일), 5박7일												
출장지역	.스페인 바로셀로나												
출장자	.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이석민 주무관												
출장일정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35 1182 1353 1787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35 1182 466 1283">일자</th> <th data-bbox="472 1182 1353 1283">수행업무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35 1292 466 1375">10.13</td> <td data-bbox="472 1292 1353 1375">.이동(인천→마로셀로나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35 1384 466 1467">10.14</td> <td data-bbox="472 1384 1353 1467">.URC ICD(국제표준질병.사인분류 개정위원회) 참가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35 1476 466 1581">10.15</td> <td data-bbox="472 1476 1353 1581">.MRG(사망기준그룹) 참가 - 원사인 선정 관련 자료 수집 및 의견제시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35 1590 466 1695">10.16~ 10.17</td> <td data-bbox="472 1590 1353 1695">.WHO-FIC 총회 및 본회의 참가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35 1704 466 1809">10.18~ 10.19</td> <td data-bbox="472 1704 1353 1809">.이동(바로셀로나→인천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일자	수행업무내용	10.13	.이동(인천→마로셀로나)	10.14	.URC ICD(국제표준질병.사인분류 개정위원회) 참가	10.15	.MRG(사망기준그룹) 참가 - 원사인 선정 관련 자료 수집 및 의견제시	10.16~ 10.17	.WHO-FIC 총회 및 본회의 참가	10.18~ 10.19	.이동(바로셀로나→인천)
일자	수행업무내용												
10.13	.이동(인천→마로셀로나)												
10.14	.URC ICD(국제표준질병.사인분류 개정위원회) 참가												
10.15	.MRG(사망기준그룹) 참가 - 원사인 선정 관련 자료 수집 및 의견제시												
10.16~ 10.17	.WHO-FIC 총회 및 본회의 참가												
10.18~ 10.19	.이동(바로셀로나→인천)												

## 1. 사망원인통계 작성 관련 의견제시 및 자료수집

### □ 사망원인 분류 및 선정 지침 관련 의견제시

- 현재 사망원인 분류 및 선정을 위하여 ICD-10(국제표준질병.사인분류)을 활용 중
- 해당내용 중 실제 업무 중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 8건\*을 제시
  - \* 사망원인 선정 원칙 6건, 사인분류 지침서 개정안 2건
  - 사망원인 선정 원칙관련 6건 중 5건은 통과, 1건은 유사제안과 통합되어 처리 중  
(유사제안에 대한 MRG 진행상황을 송부하기로 함.)
  - 지침서에 관한 2건은 회의일정의 문제로 논의되지 않아 다음 연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

### □ 사망통계 작성 관련 자료 수집

- 각국 사망원인 분류 기관 및 전문가들이 제시한 ‘질병.사망원인간 인과관계 규칙’의 변경내용 수집
  - 향후 국제기준으로 수정.배포될 ‘질병.사망원인간 인과관계 규칙’\*에 대한 능동적 대처 가능

#### <질병.사망원인간 인과관계 규칙>

- 인과관계(Causal Relationship) : 질병간 인과관계가 합당한지 판단
- 수정준칙(Modification) : 인과관계만으로 최적의 사인이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과의 유용성 및 정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시 선정된 사인을 보완

- 원사인 선정과 관련한 국제표준질병.사인분류(ICD) 지침서 2권의 개정상황 및 개정안 파악
  - 향후 원사인 선정 방식 변경에 대한 업무방식 대응방안 마련

## 2. 국제표준질병.사인분류 동향 파악

### □ 제10차 국제표준질병.사인분류( ICD-10 )

- 1995년부터 세계보건총회(WHO)에서 제정한 10차 질병.사인 분류를 우리 청에도 적용
- 이후 세계보건총회에서 제시하는 개정사항을 반영
- 향후 2019년 까지 개정작업 진행 예정

### □ 제11차 국제표준질병.사인분류( ICD-11 )

- 당초 2015년부터 제11차 질병.사인분류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다 진행일정 지연으로 2017년으로 적용시점 연기
  - ICD-10이 2019년까지 개정됨에 따라 실제 적용시기는 2019년 이후로 예상
  - 이를 반영한 한국표준질병.사인분류의 적용은 2020년 이후로 예상
- 현재 사용 중인 ICD-10과는 다른 체계로 정보처리 분야 강화

ICD-10	ICD-11
연간 개정	수시 개정(웹 플랫폼을 통한)
사망통계 활용에 초점	전반적인 통계활용에 초점
영어로 제작	다국어로 제작
실무적용 하지 않음	실무적용 실시

- ICD-11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하여 사전 각국의 실무적용 (Field trial) 프로젝트를 진행

### □ 사망원인통계 시계열 안정성 확보

- ◇ 현재 사망원인통계는 ICD-10기반으로 사망원인을 분류하여 집계 중
- ◇ ICD-11으로 변경되면 과거자료와 시계열 연계를 위하여 ICD-10과 ICD-11의 일대일 연계가 필수조건

○ WHO에서는 ICD-10과 ICD-11의 연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

	소분류	세분류
일대일 연계	80.4%	65.5%
일대다 연계	16.1%	33.3%
연계불가	3.5%	1.3%

- 일본의 자체 현장적용(Field trial)결과 일부 질병은 연계 곤란
  - 전체적으로는 77%정도 연계되었으나, 일부 질병에서는 최소 37.5%정도 연계율 도출
  - 또한, 명확한 코딩 지침의 부재, 전형적인 사례의 필요 등의 검토결과를 도출
- 사망기준그룹(MRG) 및 일부 전문가들은 ICD-11이 사망통계 작성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
  - ICD-11으로는 실제 사망진단서의 일부가 표현 불가
  - 기존 코딩체계와 분류와 의미가 동일하지 않아 통계의 시계열 왜곡 및 단절 발생 가능

- ◇ ICD-11이 분류의 체계성과 정보처리의 편의성을 강조하다 보니 현실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
- ◇ WHO도 어느 정도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 향후 개선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
- ⇒ ICD-11의 개정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.분석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

## □ ICD-11 현장적용(Field trial) 실시

- ◇ WHO에서는 ICD-11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하여 사전 각국의 실무적용(Field trial) 프로젝트를 진행
- ◇ 이번 회의(총회)에서 실무적용에 각국 통계청의 의견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도출

- 2014년 WHO-FIC 연례회의 총회에서도 국제표준질병.사인분류(ICD)의 목적은 통계작성임을 재확인
  - 모든 논의사항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역할이 중요
  - 금번 질병.사인분류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견 10건 중 7건이 우리 청이 발의
- ⇒ ICD개정에는 각국 통계청의 의견 및 실무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두
- WHO Field trial project 담당자가 한국에서도 실무적용을 시행하도록 한국보건정보개발원(한국WHO-FIC협력센터)에 요청
  - 한국보건정보개발원에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WHO에 전달, 추후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한 수행방법, 시기를 마련하자고 제안

### ◇ ICD-11의 실무적용 내용

- (분석대상) ICD가 활용되는 사망자료(사망진단서를 통한 원사인 선정)와 상병자료(건강보험 청구)
- (분석방법) ICD-10방식과 ICD-11방식의 이중 코딩 후 비교.분석

### ◇ 고려사항

-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은 민감정보이고, 비공개 항목임.
- ICD-11이 개정 시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사망원인통계의 의견이 실무적용에 반영이 필요함.
- 현재까지는 ICD-11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어 실무 적용 시 혼란의 소지가 있음.